

마음의 보금자리

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3학년
배병철

언제나 들려오던 우리 학교 종소리
지금은 안 들리네
언제나 함께 공부하던 동무들 목소리
오늘은 안 들리네

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
쓸쓸한 방에서
화면속 선생님 소리만이 들려오네
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이것뿐인가

아니다
나에게는 틀림없이
귀에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
그것은 진정 학생들을 생각하는 소리
선생님들의 마음의 부르짖음
내 가슴을 찌르는 우리 학교의 웨침소리
내 마음의 보금자리여

국어강습소를 세운 초창기 그날에도
4.24 교육투쟁의 그날에도
제2의 4.24라 불리우는 오늘날에도

조국사랑속에서, 동포사랑속에서
계속 이어온 그 소리
내 가슴에 새겨진 마음의 소리
지금은 우리 학교 못 다니더라도
분명 내 가슴속엔 항상 우리 학교가 있다

그러니 난 오늘도 배우련다
우리 학교에서 동무들과 공부할것을 그리며
동무들과 웃음소리로 이어지자고